

國寶的한글經板의發見逕路

韓 龍 雲

世界的偉人인신 世宗大王께서 여러 나라의어느文字에 권주어치든지 優秀한地位를占領할만한한글을내시고 가장 먼저 그글로翻譯하고 또그翻譯한글을木板에印刷하여 印書에便利하고 여러서永保케한것은佛經과및 佛敎書類이다 그럼으로 한글의遺跡은 大槪寺刹에保管하게되었는것이다

그리나 緞國時代에있어서 楮城三千里를 大宇宙로認識하여 各國과의比較文化를 夢想도하지못하고 다만支那文化를尊崇하는 事大思想의儒敎가 國家精神의中心이되야서 漢文을尊崇하고한글을가리켜「譯文」或「內書」라일것은時代에있어서 아모리 不世偉人의 特見苦思에서創造된 거룩한한글이라도 그때의民衆에게 尊敬을받지못하게된것은 그때지괴어한말이 안일것이이다

지못하는同詩에 佛敎가漸々衰微하여집으로 寺刹이마려서 頽廢에頽廢를繼續하게되얏다 그럼으로多種多量으로印刷되얏든 한글의佛經板은 佛敎의事大自侮의思想과 保管하였든寺刹의頽廢를마려서 漸々散亡 遺失 腐敗 成은아즉發見되지못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存在를認識하는것이 散佚된月印 千江曲四卷의板이 있을뿐이오 그밖에는實로寥寥無聞 그形影을볼수없었다

나는約十餘日前에 金鏡來氏와韓相堽氏로불러 全州安心寺에 한글經板에있다는말을 듣게되얏는데 그內容은 韓相堽氏가 舊書籍을探索하기爲하여 各寺에단이다가 安心寺에가서 한글經板이있는줄을알고 大槪探究하였으나 그種類와數量의詳細는 알지못하였던것이

그것을印出하자는計劃으로되어었다

나는그말을들은뒤에 나의一生에 많은이받은記憶이있는程度의衝動을받았다

그리하여 뜻은그이은날 뜻이나라하였으나 佛敎社에關한不得已한事情으로數日을지체하게되얏는데 지체하는동안에 거의佛經의變態作用을 일으킬만치 마음이緊張焦燥하였다

그리하여 相當히 通情하는知友에게도 秘密을지키고 며날때에도 같이있는社長과敎務院某部長의 勸誘에도不拘하고 그處所만을달라

지안이하여서 그들의苦笑를받은일이있다

七月二日午後九時에 京城驛에서 湖南線連山車票를사가지고 釜山行車를뜻다 勿論大田驛에서쉬워야할것은 記憶한일이다 차를타고서 얼마안이되야서 조금疲困하기에 잠간누엇더니 그때로잠이들었다

조금있다가깨보니 鳥致院驛에到着하였음으로 아직時間의餘

裕가있음을 생각하고 도분(斗分)이니 그 때로음나라에 갔이들어갓섰다. 문득 깨어서 車窓(차창)으로바다보니 「秋風嶺」이라곤 驛(역)의揭示板(표시판)이 보인다. 唐(당)荒(황)行(행)裝(장)을收拾(수집)하야갓이고 車(차)에나탔다. 그刹(刹)那(나)의心理狀態(심리상태)는 迅速(속)度(도)로異常(이상)하야갓었다. 한말(한말)로말하자면 차(차)를타고자다가 自己(自己)의到着地(도착지)를지나간것이 아모리一時的(一時的)의過誤(과)라할지라도 自己(自己)의存在(존재)를認識(인식)하는肯定率(肯定率)의不充實(불충실)한表現(표현)行動(행동)이 안(안)이라고할수가없다. 그로써어차임어나는 副作用(부작용)의心理狀態(심리상태)는 부그럽고 창피하고 열죄고 가로세로 괴로웠다. 스스(스)로생각하기를 나의過誤(과)가 鐵道(철도)規程(규정)에있어서 重大(중대)事實(사실)이될것인즉 죄(죄)어도 事由(사유)를 驛長(역장)에게말하는것이 음(음)을이라고하야 「改札口(개찰구)」에나가기전에 驛長(역장)의面會(면회)를請(청)하얏다. 改札口(개찰구)의係員(직원)이 驛長(역장)而會(而會)의理(리)由(유)를묻기에 나의事由(사유)를말하니「係員(직원)」은 「그원(원)은驛長(역장)에게말하는것이안인오. 여러사람에게말하는것이오」한다. 나는거들창피를당하얏다. 그사람은向(向)하야 나는「그원(원)이이렇게되얏스쿠 별

말(말)오면서어는사람을기타라고있는것같다. 나는정신을마친후 佛經(불경)板(판)을拜觀(배관)하얏다. 經板(경판)은 한글(한글)經板(경판)이안이라 다른經板(경판)도있어서 되는대로적서(적서) 秩序(서)없어 積置(적치)된것이다. 그經板(경판)은 約(약)五十年前(五十年前)까지 板殿(판전)에奉安(봉안)하얏다가 板殿(판전)이없어 積置(적치)된뒤로 法堂(법당)佛壇(불단)後(후)마루(마루)인 佛(불)바다에積置(적치)하야두엇는것인데 最近(최근)에비롯오 마루(마루)우(우)로移安(이)한것이다. 佛(불)三(삼)四人(인)의助力(도)를얻어 한글(한글)經板(경판)의整理(정리)를시작하얏는데 모은經板(경판) 約(약)二千板(二千板)의 뒤척(뒤척)져있는중에서 種類(종류)와順序(순서)를차커서 整理(정리)하기에는 여간(여간)곤란(곤란)이안(안)이엇다. 그러(그러)나(나)는 나의손이經板(경판)에接觸(접촉)될때마다 強半(강반)의憾(한)을느낀 것(것)분(분)마음(마음)을 움직(움직)이게되얏으며 同時(동시)에一板(일)二板(이)板(판)順序(순서)를차커整理(정리)할때에 만일(만일)落(낙)秋(추)이되얏으면 엇(엇)지(지)하나(하나)하는법(법)너로 마음(마음)은 緊張(긴장)에緊張(긴장)을거들하얏다. 經日(경일)은早朝(초)부터 五六(五六)人(인)의助力(도)로經板(경판)의整理(정리)를繼續(계속)하야 薄暮(박모)에다녔는데

圓覺經 (一板二面)

四二板內 兩面少 缺二板

經上一之一 五九板內 三十五六張一板缺
一面少缺二板

一之一 九七板內 百八十三四張一板缺
兩面交互錯刻二板

二之一 二七板內 一面無
刻一板

二之二 八七板內 一面無刻一板
兩面半破一板

二之三 二四板內 第四十七張在於二之
二、百七十三張後面

下一之一 三四板內 一板
少破

一之一 二九板內 一面無刻一板 一面腐
傷一板 兩面少缺一板

二之一 三三板內 一面無刻一板
半傷三板

二之二 二四板

三之一 六八板內 半板
一板

三之二 五三板內 一面無刻一板
大破二板

合五百七十七板內 二板缺
實五百七十五板

金剛經 (一板四面)

經 三十八板內 十三、四五六張一板缺
百二十九、三十三、三十二、一板缺

序 五板內 五六張半破
八張半破

後序三板

事實一板

跋 二板
心經箋一板

合五十板內 二板缺
實 四十八板

恩重經 (二板二面)

經 十二板內 二十三、四張
一板缺

實 十一板

千字 (二板二面)

合九板 (全)

類合 (一板二面)

合十四板內 二板缺
一板破

實 十一板半

總合六百六十二板內 七板半缺
實總合六百五十八板半

한글經板을整理한結果는 어리하얏다
一經에二板以上의缺板이없어져 六百五
十餘板에 七板半의缺板이라면 多少의

遺憾이저만은 實로完璧이안이라고한수
없다 絶無僅有한 完璧인數種의 한글
佛經板을檢見하야 나의손으로整理하야
노은것은 나의一生의勝事이다 古의에
서업은 快感과歡喜는 言語道를超越하
얏다

나는다시 이렇게回想하얏다 아! 世
宗大王은睿智者오 毅魄者오 偉大한信
教者이엇다 그리하야 한글을創造하시
고 偉業인同時에 信仰의大心行爲인佛
經의翻譯과 板刻의巨業을임우엇다 그
러한偉大한人物과 巨大한事業을 너그
림은품에품엇든佛敎는 果然얼마나盛하
얏엇는가 그리한偉業은 保存하지못하
얏든 三百年來의朝鮮佛敎는 일마나沈
衰하얏는가 그의殘板斷木을發見함으로
一生의勝事를삼는 나의憾愼는 經板을
整理하고 最後로 法堂을나오다가 다
시도리외々 經板을向하야 두어줄기의
눈물을뿌린것으로 뜻을막엇다

翌日에 어찌어비가 개이지안이하얏
不拘하고 떠나기로결정하얏다 經板을
검추고있는法堂을向하야 頂禮하고 住

持스님에게 經板의守護를再三부라하고
 비를맞이면서 떠났는데 비로인하여 定
 期自働車가 運轉을中止하였으므로 徒
 歩로連山驛까지와서 汽車를라고 京城
 에到着하였다

朝鮮全土에 한글經板은 月印千江曲
 의 散秩된歐卷板에不過하고 其外는絶
 無인 이때에 三種經板과 千字類을合
 하여 五種總合은六百五十餘板의完璧은發
 見하게된것은 佛敎와아은나 朝鮮學界
 을爲하여 慶賀할바이며 發見한나로서
 도 光榮으로생각하는바이다 그리하고
 한글經板은 모든意義에있어서 朝鮮의
 國寶의價値를갖인것이다

安心寺의現象은 到底히 國寶의인한
 經板을 守護할만한형은 갖이지못하
 았다 安心寺는 廢墟古寺로 寺財가없
 어서 住持一人이 山田을自農하여 生
 活을確保하는狀態인즉 그리한正實을完
 全히守護할수없는것은 明瞭한事實이다
 그리하면 한글經板의守護方法을別
 로서講究치안이하면 안이될지니 그것

(한글 圓覺經의 一葉)



은守護할方策은 大略까지가있으나
 一、安心寺에 그것을守護할만한程度
 의補助를할일
 一、그것을守護할만한 다른寺刹에 移
 안할일

一、京城에 板閣을新築或買置하여 移
 안할일
 以上의세가지들 比較하여보면 安心
 寺에補助한다는것은 여러가지로보아 困
 難한點이 많이있어서 거의不可能이되

것고 他寺에移安하는것은 일에있어서
 簡便하나 그한經板의存在로하여금 普
 遍的으로 印象을주고 學界의資料를供
 給하는데對하여 多大한不便이있을지나
 京城에移安하여 一般人衆에게 精神上
 學術上의各方面으로 意義있는便宜를주
 는것이 가장우를중로생각하며 實行코
 자하는바이다

간없는 보배란
 의글에서 찾나니라
 티글에서 찾았거니
 의글에 뜻을소나

豆滿江에 고리있어
 白頭山에 걸어놓고
 青天白日 嚴肅한빛에
 쪼이고 다시쪼여

半百年 살어오는
 사랑하는 우리커래
 보고되고 다시외쳐
 온누리의빛 지으리라